

# 치솟는 금리에 대출차주 '덜덜'... 1인당 이자부담 64만원 ↑

기준금리 연내 2~3차례 인상 전망  
주담대 6%대, 전세대출 5% 문턱  
변동금리 차주 이자 부담 가중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리인상기를 맞아 올해에만 2~3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6%대를 바라보고 있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5% 돌파를 앞에 두고 있어 차주들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코픽스연동)는 연 3.71~5.21%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3.71~5.21%, 하나은행 3.81~5.11%, 우리은행 3.94~4.95%, 신한은행 3.91~4.91%, NH농협은행 4.03~4.33% 등이다.

이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기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코픽스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1월(1.55%)보다 0.14%포인트(p) 인상된 1.6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한은)도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코로나 이전 수준

으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족의 이자부담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인정받아

구입한 경우 최대 4억원으로 지난해 3%로 이자로 단순 계산했을 때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 하지만 최근 오른 5.21%로 계산하면 연 이자는 2084만원, 월 173만원이다. 여기에 30년 만기기준 원금상환까지 같이 하게 되면 3%에 빌렸던 차주는 월 168만6416원, 5.21%에 빌렸던 차주는 월 219만8915원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5%에 육박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대출금리가 각각 0.25%p와 0.5%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이 3조2000억 원, 6조4000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1744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비중(73.6%)으로 추산한 결과다.

한은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금

리가 0.25%p, 0.5%p 오를 때 각각 16만1000원, 32만 2000원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해 지난 1년간 대출금리가 약 1%p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이자액도 64만4000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올해 기준금리가 2~3차례 추가 인상될 것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영향을 받아 1분기 이후 차주들의 금리인상기 공포는 가중 될 것이라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시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진입했고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비중도 지난해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나 대출 받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며 "은행권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향후 우대금리를 통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시중銀 못지않네”... 저축銀, 주담대 금리 4%대 등장

일부 저축은행 주담대 금리 인하  
시중銀-저축銀, 대출금리 폭 최저  
SBI저축銀, 0.6%p 내려 4.65%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출 금리 폭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5.16%로 두 달 사이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2014년 9월(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9.32%로 집계돼 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4.1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5.3%포인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25%포인트 상승한 연 3.51%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저축은행에서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인하됐다. 실제 IBK저축은행의 주담대 상품 금리는 지난해 7월 기준 최저 5.13%에서 지난달 4.5%로 하락했다. 삼호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

간 최저 5.54%에서 4.89%로 떨어졌다.

SBI저축은행의 희망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같은 기간 6.82%에서 5.76%로 낮아졌으며 온라인주택대출 상품 금리는 4.82%에서 4.7%로 하락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달부터 전사적인 차원의 주담대 금리 인하에 돌입했다. 주담대 상품의 구조를 바꿔 금리를 기존 최저 5.25%에서 최저 4.6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적용되며 현재 저축은행 상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신용점수가 800점만 넘어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시 이전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BK저축은행은 신용점수 801점~900점 구간의 차주에게 평균 8.23%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 전월(10.9%) 대비 2.67%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NH저축은행은 8.08에서 8.02%로, 신한저축은행은 10.4%에서 9.31%로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KB저축은행의 직장인 전용상품인 kiwi파트너대출의 평균금리가 지난해 10월 10.36%에서 지난달 8.45%로 떨어졌다.

/권소원 기자 think@

## 자사 플랫폼서 게임 유통... 애플 견제

>> 1면 'MS, 80조'서 계속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차기작을 향한 기대감도 더 커졌다.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 등 인기 IP 후속작이 개발 중이었지만, 최근 사내 성추행 등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상황. MS가 인수에 나서면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콘텐츠 전쟁 시작하나

MS가 '역대급' 인수 금액으로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콘텐츠 확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어, 게임 플랫폼 업계도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수료로 성장한 애플이 견제를 받게 됐다.



애플도 애플 TV플러스와 애플 아케이드 등에 투자를 이어가며 구독 서비스 '애플 원'도 서비스하고 있다. /애플

MS가 캔디크러시 시리즈를 앞세워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앱스토어가 아닌 자사 플랫폼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출시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이모탈 등 스마트폰 게임 뿐 아니라 인기 PC 게임까지 스마트폰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서 앱스토어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MS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이

어오고 있다. 갤럭시와 협력을 통해 안드로이드 게임 생태계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애플이 이미 애플 TV 콘텐츠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게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콘솔 게임 업계 경쟁자인 소니와 닌텐도도 비상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이 엑스박스 독점 출시되면 콘솔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양사는 최근 TV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강화에 주력해왔다. 각각 삼성TV플러스와 LG 채널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최근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까지 지원하며 스마트 TV를 활용한 콘텐츠를 대폭 늘리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게임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대규모 M&A에 이목이 쏠린다.

/김재용 기자 juk@

### 제21차 정기총회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임인년에도 健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노비즈협회는 정관 제4장 제17조에 의거,  
「제2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노비즈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① 일 시 : 2022. 02. 22(화) 16:00
- ② 장 소 : 엘타워 7층 그랜드홀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7층 그랜드홀)
- ③ 행사계획
  - (16시~17시) 1부 제21차 정기총회
  - (17시~20시) 2부 행사 및 네트워킹

2022년 1월 20일

☎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화 031-628-9600)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본 행사의 세부일정 및 참석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